삼손과 손기정

(사사기 13:1~25)

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2.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6.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7.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삼손과 손기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삼손과 손기정'

제가 글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한국 대학생이 세계의 건각들을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그 한국인은 아시아의 힘과 에너지로 뛰었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의 열기를 뚫고, 거리의 딱딱한 돌 위를 지나 뛰었습니다. 그가 이제 트랙의 마지막 직선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승자 '손'이 막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입니다.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이 마라톤 경기와 함께 막을 내리려는 순간입니다. 십이만 명이 모여 있는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독일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순간이 의미 깊었던 이유는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을 선동

해서 광적인 나치즘으로 몰고 가던 히틀러가 아리아 인종이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통해서 독일 국민의 우월성의 옳음을 인종주의적 주장으로 증명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더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서 온 작고 깡마르고 머리를 바짝 깎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의 한 마라토너 손기정이 우승 테이프를 끊게 됩니다.
경기장의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아서 42.195km를 채우게 되는데 마지막 100m의 기록을 보면 11초입니다. 축구선수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수도 11초가 없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그렇게 빨랐다고 하지만 11초 1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2시간 30분대가 마의 시간대였는데 2:29:19.2에 결승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인종주의적 편견에 찌든 히틀러가 손기정에게 와서 악수를 하게 되고 나치가 손기정 선수의 우승에 감동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장내 아나운서가 일장기를 달고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한생'이라는 멘트를 했고 조선에서 온 사람으로 방송하였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테이프를 끊고 들어오자 만세도 환호도 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신발을 벗었는데 신발이 작아서 뛰는 내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탈의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기정 선수의 그늘에 가려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때에 남승룡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시상식을 하는데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흘러나오자 손기정 선수와 남승룡 선수가 월계관으로 자기 옷의 일장기를 가렸는데 옆에서 찍은 카메라에 의해서 일장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 사진을 우리나라의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넘겨받아서 신문에 기재할 때에 일장기를 지우고 기재했다가 조선중앙일보는 일제에 의해서 폐간되고 동아일보는 무기정간처리를 받게 됩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손 선생님의 베를린 마라톤 금메달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가 지속되고, 일제의 식민지가 기억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회자될 것입니다. 이 분 말고도 금메달을 딴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이 사건의 의미가 깊은 이유는 다른 금메달과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 식민지에 의해서 동북아시아의 조선은 전 세계인들의 의식과 역사의 지평에서 매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고 독일의 아나운서들이 한국 사람으로 방송하면서, 세계 역사에서 매몰되어 가고 있던 조선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손기정 선생님의 베를린 올림픽의 금메달의 의미가 깊은 것이고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에 시달리고 있던 온 조선 민족이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을 통해서 기쁨과 희망을 찾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 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분되어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은 포도나무의 소산과 독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즉 술에 취하면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단 지파의 자녀가 없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서 세상으

로 출연하게 되는 배경을 보면, 대 사사 여섯 명과 소 사사 여섯 명과 비교를 해봐도 삼손은 차이점이 확연합니다. 무려 사십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아직 회개를 한다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 대부분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사사가 등장했는데, 삼손의 경우에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삼손을 사사로 내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사십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침략과 학대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삼손은 기드온, 입다, 에훗, 옷니엘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무리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사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오직 단독으로 행동을 하는데 아예 지도자적 면모가 없는 위인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대규모의 전쟁을 치르는데, 삼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 전쟁이 아닌 돌발적으로 그때마다 싸움을 했는데, 무기도 제대로 없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천명을 죽일 때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삼손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대 사사들의 활동에 비해서 그의 활동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부분적인 타격을 가했을 뿐이고, 결국 블레셋은 다윗 시대에 와서야 온전히 정복되게 됩니다. 삼손의 싸움은 블레셋에 타격은 입히지만 타 종족을 멸절시켰던 다른 대 사사들과의 싸움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에 의한 이스라엘 구원의 성격을 봅니다. 5절에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하는데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하십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입힌 타격은 사실 블레셋 민족의 멸망을 초래할 만큼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삼손에게 블레셋은 다만 골치 아픈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삼손은 혼자 활동하면서 아스글론에서 삼십 명을 죽이고, 여우 삼백 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의 곡식밭을 태웁니다. 유다 땅 레히에서는 나귀 턱 뼈로 천명을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잃고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수치를 당하다가 다곤 신 축제일에 기둥을 뽑아서 살아생전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고군분투하면서 혼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는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 수가 결코 한 민족의 멸망을 초래할 만큼 대단한 수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이 단독으로 행한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구원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역

사 속에서도 삼손을 추앙하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들도 대 사사의 이름을 다 기억하진 못할 텐데, 삼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만큼 유명한데, 삼손의 유명세에는 어떤 내막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 점에서 삼손은 대한민국이 손기정 선생님의 이름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사실과 의미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삼손에 의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사십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이방민족의 압제 아래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억눌리지 않고 있는 선민의 영적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블레셋에 사십년이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살아있네!'라는 모습을 세상과 이스라엘 선민 자신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제하에서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정치적 물리적 해방을 이룬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민족혼을 되살린 것이고 '우리가 선민이구나!'라는 민족정신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십년 동안 부르짖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 저항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짓눌리고 먹혀버린 상태이지만 삼손을 보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아직 살아있네!'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삼손의 사사로서의 활동의 의미는 '한 사람의 선민이 자기의 마음 안에서 민족을 억누르고 있는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려 사십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과 학대로 곤고를 당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특이할 정도로 부르짖지도 못하고 눌려 살면서 저항의식조차 불거져 나타나질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음 안에서는 그토록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블레셋의 존재가 늘상 한주먹거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삼손은 무리를 모아서 거사를 도모할 위인이 아니었지만, 언제나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블레셋은 그 어떠한 장애도 되질 못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이 있거나 없거나 하고 싶은 대로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압제하면서도 삼손 한 사람을 이기질 못하는데 참 특이합니다.
삼손의 마음 안에서는 블레셋의 지배력도 이스라엘의 무기력함도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질 못합니다. 온 민족이 눌려있을 때 혼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드온은 미디안에 눌려 있었을 때 같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무기력함조차도 삼손에게는 의미가 없었는데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16:32~3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

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열두 제자도 다 도망쳐서 혼자 남으실 것이면서 무슨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한 분을 가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 속에 사시는 동안에 결코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어있는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 움직이실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한 분을 가지심으로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어떤 가치들에게도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가치들에 굴복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히2: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를 마음에 담으심으로 육체의 죽음을 담지 않으십니다. 돈을 가치로 담지 않으시고,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권력을 가치로 담지 않으십니다. 인기를 가치로 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기쁨과 만족의 원천으로 삼으시고 그 분의 뜻만을 추구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규정인 것입니다.

'나실인의 규정'은 이 세상을 식민지화 하고 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듯이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기는 삶의 모습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치에 취한다.'는 것은 돈이 있어서 기뻐하거나 없어서 슬퍼한다면 이미 돈에 취한 것입니다. 육체가 죽을까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이미 육체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에 취해있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깍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머리는 하늘을 상징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시체에 손대지 말라'고 하심은 시체는 하나님의 뜻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행하지 말라'는 것인데 혼자 그렇게 사는 것이고, 삼손의 전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직장에 가면 아무도 천국을 의식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지배되어 마귀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승진과 성과와 돈을 좋아하는 직장 안에서 '삼손으로 살라는 것인데 그 식민지의 지배력을 마음에서 이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는 '그 지배력을 이겨내라'는 것인데, 단독으로 행동하는 삼손의 행동이 뜻하는 바가 그러한 것으로, 다른 모든 사사들의 행동보다도 나 개인에게 주는 중차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 돈 하고 있는 시장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돈의 지배력에 의해서 천국이 매몰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서 '천국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마음에서 블레셋의 지배력을 무찌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삼손 안에서만은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선민의 혼이 살아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어디서든지 천국이 매몰되고 있습니다. 일제식민지하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역사지평에서 매몰되어 가듯이 천국이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매몰되어 가는 천국을 구원해내야 내가 죽은 뒤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고 매몰되어 가는 천국을 구원해 내는 삼손 같은 천국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나실인의 규정이 온전히 지켜지게 되어 삼손 같이 이 세상에서 매몰되어 가는 천국을 구원하는 천국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